

잇따른 대면강의 전환에 일부 학생들 철회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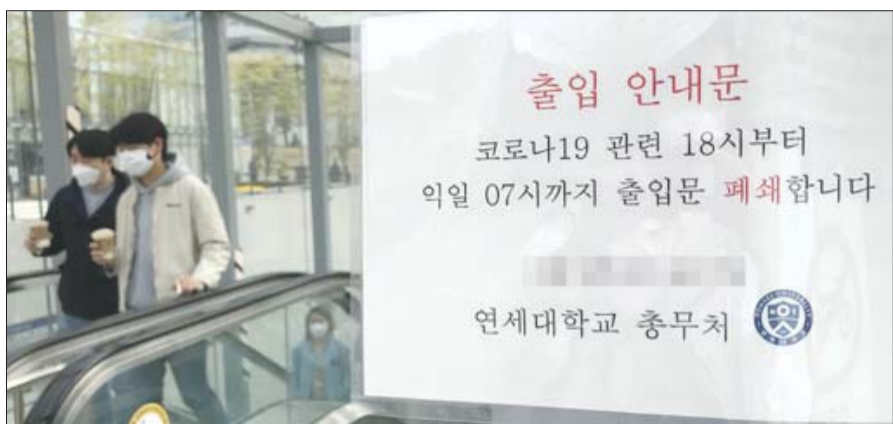
# “당장 머물곳도 없어... 학생 동의 없는 무대책 개강”

가천대 총학생회 자체 여론조사 응답자 70% 1학기 온라인강의 요구 지방 재학생 당장 방 구하기도 막막

대학 간 다른 대면 강의 방침에 학생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대면 강의 재개를 추진하자 되레 일부 학생들이 대면 강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강의를 일부 대학들이 속속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학생들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간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수업의 강의 질과 학습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해 왔다.

가천대 총학생회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 70%가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를 요구했다고 밝혔



연세대 교내에 '코로나19 관련 출입문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메트로신문 DB

다. 대학 측이 이달 8일 이후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키로 하자 학생들은 이를 근거로 반대에 나섰다. 학생들은 “대면 강의 반대” 취지의 SNS에 올리고 여론을 모았다.

결국 가천대는 학생들 반발에 부딪혀 수정된 수업 진행 기준을 내놨다. 가천대는 수업방식 선택을 학생에게 맡기면서도 화상강의 출석에 따른 성적 불이익 처리는 없다고 안내했다.

학생 ‘동의를 받고’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데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수 결정권이 비교적 절대적이라 거부하기 어렵다”는 한 대학원생의 우려는 다수 학생의 공감을 얻었다. 연세대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 학생은 “20명 이하 강의는 교수와 학생 동의하에 대면 강의를 허용하고 있는데, 대학원생들이 거부 의사를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학생들의 동의하에’ 대면 강의를

한다는 말에는 (학교의) 책임이 없다”면서 “면역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아 온 학생으로서 대면 강의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앞서 송실대는 총학생회가 학생 설문 조사를 수렴해 먼저 학교 측에 1학기 전면 원격 수업을 요구했다. 총학이 나서 학우들의 학습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 요구 사항을 담아 학교 본부에 제시했고, 대학 측은 교무위원회를 열어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송실대는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를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주거 불안도 학생들의 우려 사항이다. 재택으로 온라인강의를 듣던 학생들이 한 달 남짓 남은 1학기 중 대면 강의를 위한 자취방이나 기숙사를 구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학도 코로나 19 추이를 살피며 대면 강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학생들에게 미리 알리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초·중·고와 달리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여 감염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

다. 지방의 한 대학 재학생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등 많은 지역에서 학생들이 오는데 고등학교보다 좁은 강의실, 강의실의 위생 문제, 학식, 기숙사 등에 대해 학교는 대책 없이 개강만 확정했다”라면서 “대학 측이 대면강의를 공지해 당장 학교 근처로 방을 구해야 하는데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코로나 19 여파로 대학가에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기고 있지만, 교육부는 2월 ‘온라인 수업 권고’ 이후 대부분 사안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다. 서울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 전환 이후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가 이어졌는데, 최근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려 하자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 “학생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차라리 교육 당국이 대학에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중앙대, 미생물 유전체편집 신기술 개발

1개의 염기만 정교하게 편집 가능

중앙대는 이상준 시스템생명공학과 교수와 김현주 박사, 이호중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이 CRISPR/Cas9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정교한 미생물 유전체 편집 기술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상준 교수 연구팀은 CRISPR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수백만 개의 유전체 염기서열에서 1개의 염기만을 정교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지금까지는 미생물 유전체의 타겟 DNA에서 염기 2-3개만을 편집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가이드 RNA와 타겟 DNA 서열 사이의 1-2개의 염기서열 불일

치에도 타겟 DNA를 유전자가위가 자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가이드 RNA에 붙일지 염기를 미리 도입함으로써 미생물 유전체를 단일 염기 단위로 편집, 수선했다.

이상준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로 미생물에서 단일염기수준의 유전체 편집이 가능해져 산업미생물 균주개발을 비롯한 합성생물학 등 다양한 생명공학 분야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23일 유전체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 ‘Genome Research’ (IF=9.94)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이현진 기자

## 순천향대, 교육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 선정

# 입학만 하면 취업걱정 끝... 현장서 실무병행

6년간 68억 4000만원 지원 기업맞춤형 집중 교육 운영

순천향대는 7일 교육부 ‘2020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육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순천향대는 이번 사업선정으로 6년(4년+2년)간 총 68억 4000여만원을 지원을 받는다.

2018년에 도입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기업맞춤형 집중교육과 현장실무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결합해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초기에 취업을 확정하고, 기업에 재직하는 상태에서 학습도 할 수 있는 교육모델이다.

입학과 동시에 기업체와 채용 약정을 맺고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학비를 지원받아 이론중심 대학교육과 실무중심 현장교육을 결합한 3년 교육과



순천향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2년에 재학 중인 김현수, 유현씨가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위치한 (주)신영유니크 현장에서 계측장비의 데이터 관련 손영석 반장(가운데)의 현장교육을 듣고 있다. /순천향대

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1학년 때 학교에서 기본교육을 받은 다음, 2~3학년 때는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면서 공부를 병행하게 돼 입학이 곧 취업인 셈이다.

순천향대는 ‘2020년 조기 취업형 계

약학과 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스마트팩토리공학과(40명 모집)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30명 모집) ▲융합바이오화학공학과(30명 모집)를 신설해 미래 첨단산업 및 충청남도 전략산업과 연계 전공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 서울과기대, 대학창업 펀드 운용사 선정

서울과학기술대가 설립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기술지주가 2020년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교육부 대학창업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벤처투자는 7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기술지주(이하 서울과기대기술지주)·충북대학교기술지주·벤처박스 주식회사가 공동 운용사(Co-GP)로 신청한 ‘2020년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이하 대학창업펀드)’에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대학창업펀드는 대학 내 창업기업의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 등이 함께 조성한 펀드다. 학생과 교원 등 대학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지원을 통해 대학 내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 붐 확산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서울과기대기술지주는 공동 운용사와 함께 투자액(최소 10억원 이상)을 조성해, 피투자기업 발굴과 투자 집행 등 펀드 운용 전반을 담당하게 되며 투자회수 시 성과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이현진 기자

## 중앙대, ‘창업교육 거점대학’ 사업 선정

창업교육 강화·네트워크 구축 추진

중앙대가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년 창업교육 거점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창업교육 거점대학은 대학이 보유한 창업교육 및 지원 역량을 활용해 권역 내 타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창업교육 선도모델을 개발, 확산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발하는 사업이다.

중앙대는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강릉원주대, 대전대, 한밭대와 함께 총 3년간(2020~2022년) 7억5000만원의 국고

를 지원받는다. 이를 ▲중부권의 대학 창업교육 역량 강화 ▲창업교육 고도화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상규 총장은 “창업교육 거점대학 선정을 계기로 교내 창업교육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학생창업-창업사업화-창업보육 등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창업지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앙대가 대학별 창업의 허브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삼육대 중기부 경영평가 ‘최우수’

삼육대 창업보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0년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 평가는 창업보육센터의 전년도 경영실적 및 성과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는 당해 연도 보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평가에서 삼육대 창업보육센터는 ▲기관의 전문성 ▲운영 인프라 ▲운영실적 관리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두루 좋은 점수를 받아 상위 20%에 해당하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현진 기자